

환경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 <숲을 그냥 내버려 뒀!>를 읽고 -

천안 쌍용 초등학교

3학년 2반 배이준

《숲을 그냥 내버려 뒀!》주인공 쥐돌이는 플라스틱 병, 비닐 봉지, 건전지, 알루미늄 캔 등을 실컷 사용하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과학자다.

그런데 어느 날 끈적끈적한 보라색 물이 쥐돌이 얼굴에 튄다. ‘오염물질인가?’하고 잠시 생각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멀리 가져가 버리면 돼.”라고 말한다. 오염물질을 땅에 묻고 껌쪽같이 꽃을 심어보지만 꽃은 금세 죽어버린다.

잠시 걱정하는 마음이 들지만 쥐돌이는 더 멀리 가져가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며 잠수정에 오염물질을 싣고 가서, 아주 깊고 깊은 바다 속에 내버리고 온다. 그러나 깊은 바다 속에 버린 오염 물질은 쥐돌이보다 더 빨리 땅 속 깊이 스며들어 쪽쪽 뻗어나가 나무도 풀도 모두 병들고, 숲 속 친구들은 전부 숲을 떠나버린다.

쥐돌이의 발명은 계속되고 오염물질을 새로운 발명품인 로켓에 싣고서 달나라에 버리고 온다. 다시는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라색 구름들이 점점 더 가깝게 다가와 보라색 비로 내려 온 세상을 다 오염시킨다.

다행히도 이 끔찍한 일은 쥐돌이의 꿈이었지만 그날 이후 쥐돌이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 때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 한다.

《숲을 그냥 내버려 뒀!》를 읽으면서 요즘 우리 나라 하늘을 뒤덮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생각해 냈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태어날 텐데, 우리가 쓰는 수많은 물건들이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니 미세 먼지가 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수많은 일회용품과 엄청난 새로운 물건들을 끊임없이 사용한다면 앞으로 더 모질고 끔찍한 미세먼지에 시달려야한다고 생각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들이 잘못 사용하면 자연과 환경을 아프게 하고 결국 우리 삶도 파괴된다니 물건 하나를 사용하는 것도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결정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할 때다. 지구를 살리는 길이 흙과 숲을 살리는 길이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길, 온 누리의 생명이 함께 살아나는 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